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사, 투기자본에 넘어가선 안 돼”

광주시민사회, 독점 공급 ‘해양에너지’ 맥쿼리 인수 반대

“어떤 규제도 없이 투기 자본 먹잇감 거래 되는 것 우려”

광주 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를 맥쿼리가 인수에 나선 것과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기관 등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와 시민적 통제를 위한 대책위’ 준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투기 자본 맥쿼리가 광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섰다고 한다.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도 없이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거래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러 “해양에너지의 운영·매각 과정에서 매년 안정적으로 100억 원 넘게 발생하는 배당 이익과 수천억씩 발생했던 매각 시세 차익이 독점·투기 자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사였던 맥쿼리는 자회사로부터 막대한 이윤로 자금을 빌려왔고 상환 명목으로 이익을 챙겼다. 운영사는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시민들에게 시장 수익률 이상의 요금 부담을 전가하고 광주시로부터 지원금을 챙겨 현세를 낭비했다. 소속

노동자는 외주화해 나쁜 고용 환경으로 내몰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상황이 해양에너지 인수 이후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매각을 결사 반대했다.

단체는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향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투기 자본이 아니라 광주시와 시민적 통제하에 해양에너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 생존과 직결된 도시가스 부문

을 시민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해양에너지의 운영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선순환경제 시스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준비위원회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광주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이 참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바쁘다 바빠, 농번기 새벽 들판

다소 쌀쌀한 아침 기온을 보인 지난 25일 강진군 작천면 들판에 해뜨기 전부터 들판을 찾은 농부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임을 알려주고 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대숲맑은담양쌀 ‘대상’

생산·가공·저장·유통 철저한 품질관리
 맛·냄새·조식감 등 식미검사 결과 우수

전남도는 명품쌀 생산·유통을 견인할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영예의 대상은 담양 ‘대숲맑은담양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강진 ‘프리미엄호평’, 우수상은 함평 ‘함평나비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순천 ‘나누우리’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무안 ‘황토랑쌀’, 해남 ‘한눈에반한쌀’, 곡성 ‘백세미’가 뽑혔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생산부터 가공·저장·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을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쌀을 선정한다.

분야별 전문가에 의뢰해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시중 판매처에서 2회에 걸쳐 시료를 무작위로 구입해 품종 혼합률과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문가를 통해 맛, 냄새, 조식감 등 식미 검사를 했다.

이번 10대 브랜드 평가 결과 전남도에서 육성하는 새재무 품종에서 3개가 포함됐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10



대 브랜드 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며 “품질 경쟁력과 홍보를 강화해 소비시장에서 경기미와 대등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대량 수요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편입점 CU 운영회사인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해 연말까지 340억 원 상당 1만2800t의 새재무 쌀을 감발용으로 공급키로 했다.

김정환기자

접종완료 148만명 중 ‘돌파감염’ 단 4명...2주 후 감염 2명도 증상 無

“접종 14일 전 바이러스 노출 추정”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에도 확진되는 ‘돌파감염’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국내 돌파감염 사례는 4건으로 매우 적으며,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후 감염된 경우에는 고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을 마친 148만2842명 중 14일 이후 확진된

사례는 4명이다.

코로나19 1차, 2차의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14일이 지나면 매우 높은 면역력이 형성되는데, 그런데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이 중 2명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돼 백신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전인 14일 이전에 감염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2차 접종 14일 경과 이후 감염된 2명은 임상

증상이 없었다. 접종을 완료한 이후 감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병이 지나간다는 얘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5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돌파감염은 결코 뭐가 잘못되거나 어떤 놀랄 만한 현상이 아니라 어느 백신에서나 낮은 확률로 존재한다”면서 “사람마다 면역반응의 정도 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곳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순천 3E프로젝트

생태
교육
경제